

# 권위주의 체제이론으로 본 북한 권력승계 과정과 특징

강정일\*

- I. 서론
- II. 이론적 검토
- III. 북한 권력승계 과정의 구분과 단계별 특징
- IV. 권력승계 과정에 나타난 권위주의 체제의 특징
- V. 결론

## 국문요약

본 논문은 권위주의 체제이론을 바탕으로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과 3대 권력세습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향후 전개될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을 예측한다.

본 연구는 먼저 권위주의 체제이론의 검토를 통해 북한 정권의 정치체제에 대해 살펴보고, 권위주의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권력승계의 특징들을 고찰하였다. 또한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을 후계자 내정단계, 후계자 공식화 단계, 권력승계 후 안정화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승계 과정을 비교하였다. 이후 권위주의 체제의 권력승계 특징들을 중심으로 북한

정권이 안정적으로 권력승계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김정은 이후 전개될 권력승계 과정에 대해 예측하였다.

그 결과, 독재체제인 북한은 권위주의 체제의 특징 4가지, '체도의 정비를 통한 정당성 확보', '개인숭배를 통한 후계자의 이상화', '혈연관계 중심의 후견인제도'와 '파워엘리트의 재편'을 통해 권력승계를 안정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었고, 향후 권력승계 과정에도 그대로 답습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권력승계, 권위주의 체제이론, 후견인, 이상화, 파워엘리트

\*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국방정책담당

## I. 서론

권력승계 과정은 확립된 승계 절차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원만히 진행될 수도 있지만 때론 전임자에게 발생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후임자로의 교체가 급하게 진행되면서 권력승계 절차가 간소화되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한다.<sup>1</sup> 지도자 교체 이후 권력이 안정화되기까지 이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 그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권력승계 기간과는 무관하게, 북한은 1948년 정권 수립 이후 75년 동안 혈연승계 원칙을 고수하며 3대에 걸쳐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0년 9월 28일, 북한은 제3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30년 만에 당규약을 개정하고,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함으로써 북한 세습 후계 구도의 출범을 공식화하였다. 김정은의 권력승계 과정은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급성 심근경색과 심장 쇼크로 인해 급사함으로써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 1973년 후계자로 공식화된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권력승계를 준비했던 김정일과는 달리 김정은은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집약적으로 권력을 승계받아야만 했다. 많은 이들은 통치 경험이 전무한 후계자 김정은이 성공적인 권력승계를 이루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 반신반의했고, 설사 권력을 승계받는다 고 하더라도 김정일 사후 단기간에 세습된 권력이 안정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또한 숨기지 않았다. 세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후계자 김정은은 권력을 안정적으로 승계한 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건재한 상태이다. 더욱이 최근 김정은의 차녀 김주애의 등장으로, 북한 권력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후계 구도에 대한 논란까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역사적 제도주의에 따르면 현재의 정치제도는 과거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제도들이 축적되어 나타난 것으로서, 지속성과 경로의존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국가의 정책과 제도에 영향을 미쳐 쉽게 변하지 않

<sup>1</sup> Clapham, Christopher, "Epilogue: Political succession in the Third World," *Third World Quarterly*, vol. 10, no. 1 (1988), pp. 281~288; Govea, Rodger and John Holm, "Crisis, Violence and Political Succession in Africa," *Third World Quarterly*, vol. 19, no. 1 (1998), pp. 129~148.

는다고 설명한다.<sup>2</sup> 북한의 정치제도나 권력승계 과정도 역사적 제도주의에 따르면 쉽게 변하지 않으리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김정은 이후의 권력승계 과정 또한 과거 김정일-김정은의 후계체계 구축과정과 현저히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 예측이 가능하다. 3대째 세습되고 있는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은 주요 직위의 승계 과정과 공식적인 북한의 발표를 통해 그 결과를 파악할 수 있지만 권력승계가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에 있어 과거의 경험과 제도적 변수들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분석하기 어렵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승계 과정을 비교하여 살펴본다면 북한 권력승계에 대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권위주의 체제이론을 바탕으로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과 그 특징들을 살펴보고, ‘1948년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북한 정권이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과 3대 권력세습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먼저 권위주의 체제이론의 검토를 통해 권위주의 국가들의 정의와 유형에 관해 살펴보고, 권위주의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권력승계의 특징으로 도출된 ‘제도의 정비를 통한 정당성 확보’, ‘개인승배를 통한 후계자의 우상화’, ‘혈연관계 중심의 후견인제도’와 ‘파워엘리트의 재편’의 4가지 특성에 관해 분석할 것이다.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을 후계자 내정 단계, 후계자 공식화 단계, 권력승계 후 안정화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승계 과정을 비교 분석할 것이며, 4장에서는 권위주의 체제의 권력승계 특징들을 중심으로 북한 정권이 안정적으로 권력승계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5장에서는 도출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김정은 이후 전개될 권력승계 과정에 대해 예측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특성상 북한의 공식적인 자료를 가지고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기는 다소 제한이 된다. 하지만 기존 학자들의 연구 결과물과 통일연구원의 자료, 그리고 북한의 국가수준 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권위주의 체제의 특징과 북한 권력승계 과정을 분석하였다.

<sup>2</sup> Kathleen Thelen and Sven Steinmo,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Politics,” in Steinmo, Thelen, and Frank Longstreth, ed., *Structuring Politic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p. 7~10.

## II. 이론적 검토

### 1. 권위주의 체제의 정의와 분류

흔히 북한의 정치·경제체제를 지칭할 때 사회주의 체제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체제란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국가 또는 공동체 전체가 생산 및 분배 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경제 체제’를 의미한다.<sup>3</sup>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인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에 관해 고찰하기 위해서는 경제체제가 아닌 정치체제(regime)의 범주에서 민주주의 상대개념인 권위주의(또는 독재주의)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권위주의 체제 연구의 권위자인 린츠(Juan Linz)는 “권위주의는 정교한 이념은 부재하나 고유한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으며,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수의 정치 집단 또는 통치자에 의해 권력이 행사되는 정치체제”로 정의하였다.<sup>4</sup> 칼루(Kalu Ndukwe Kalu) 또한 권위주의에 대해 “권력이 단일 통치자, 일부 엘리트 그룹 또는 정당에 집중되어 시민의 정치적 권리 또는 자유를 제한하거나 전혀 갖지 못하게 하는 정부 형태”로 정의한 바 있다.<sup>5</sup> 즉, 권위주의 체제는 일부 정당이나 군부의 통치에 기초한 독재정치이거나 과두정치일 가능성이 높으며, 정권 유지를 위해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의 사용’, ‘법치의 축소’, ‘입법부와 정당 및 이익 집단에 대한 제약’ 등의 기재를 활용하는 정치체제라 할 수 있다.<sup>6</sup>

권위주의 체제는 게디스(Barbara Geddes)의 분류에 따라 개인독재(personalist Dictatorship), 군사독재(Military Dictatorship), 일당독재(single-party Dictatorship)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각기 다른 정치적 상황과 정권의 특징에

<sup>3</sup> Busky, Donald. F., *Democratic socialism: a global survey* (Westport: Greenwood Publishing Group, 2000), p. 2.

<sup>4</sup> Linz, Juan J., “An Authoritarian Regime: The Case of Spain,” In Erik Allard and Yrjo Littunen(eds), *Cleavages, Ideologies and Party Systems* (Helsinki: Westermarck Society, 1964).

<sup>5</sup> Kalu, Kalu N., *A Functional Theory of Government, Law, and Institutions*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2019), p. 161.

<sup>6</sup> Ezrow, Natasha M. and Erica Frantz, *Dictators and Dictatorships: Understanding Authoritarian Regimes and Their Leaders* (New York: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2011), p. 17; Lai, Brian, Slater, Dan, “Institutions of the Offensive: Domestic Sources of Dispute Initiation in Authoritarian Regimes, 1950~1992,”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0, no.1 (2005), pp. 113~126.

따라 세 가지 유형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혼합체제(Hybrid regime)의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sup>7</sup> 케디스에 의하면 가장 안정적인 권위주의 체제는 한가지 특징을 가진 독재유형이 아닌 세 가지 특징들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혼합체제의 유형이었다.<sup>8</sup> 즉, 혼합체제의 권위주의 유형이 <표 1>과 같이 가장 오랜 기간 유지되었으며, 개인독재, 일당독재, 군사독재 순으로 정권의 평균 지속 기간이 상이함을 볼수 있다.

〈표 1〉 권위주의 체제의 유형과 유지 기간

유형	혼합체제	개인독재	일당독재	군사독재
기간 (약)	43.5년	35년	18년	10년

출처 : Barbara Geddes, *Paradigms and Sand Castles: Theory Building and Research Design*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3), pp. 76~78.

권위주의 체제는 헌법적으로 국민에게 책임이 없는 지도자나 일부 엘리트에게 국가권력이 집중되어 있어 이들이 경제, 언론, 교육, 법제도 등 사회의 모든 측면을 통제한다. 즉, 각 권위주의 유형의 주체들이 행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관료들의 인사권을 독점하고, 국가정책의 결정권을 독점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하고 통제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인독재의 경우 군사 정권과 일부 단일 정당과의 권력 투쟁의 결과로 정권을 획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이 국가정책과 인사권에 대한 영향력을 거의 독점한 상태에서 국가조직을 장악하는 경우가 많다.<sup>9</sup> 이것이 권위주의 체제를 협의의 의미로 ‘개인독재(personalist Dictatorship)’라고 부르는 이유이며, 개인독재 정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다.<sup>10</sup> 일정 정도 공고화된 개인독재 정권은 그 자체로 권위주의적 복원력(authoritarian resilience)이 높기 때문에 정권 유지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sup>11</sup>

<sup>7</sup> Barbara Geddes, *Paradigms and Sand Castles: Theory Building and Research Design*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3), p. 57; Barbara Geddes, “What do we know about democratization after twenty year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2, no. 1 (1999), p. 122.

<sup>8</sup> 권위주의 안정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소개는 윤도원, 백우열,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권력승계 과정과 체제 안정성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59집 3호 (2019), p. 271를 참고할 것.

<sup>9</sup> Barbara Geddes, *Paradigms and Sand Castles: Theory Building and Research Design*, p. 123.

<sup>10</sup> Ezrow, Natasha M. and Erica Frantz, *Ibid.*, p. 216.

북한 정권에 대해 케디스는 1948년 정권 수립 이후 일당-개인(single-party/personal)독재를 유지해오고 있는 혼합독재 유형으로 분류하였다.<sup>12</sup> 일당-개인 독재체제의 특징은 지도자가 개인 통치에서 오는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민중 통제를 위해 제도화된 통치기구인 단일정당을 독재의 보완 기재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동일 유형으로 분류된 북한 정권의 특징도 다르지 않다. 즉, 3대를 거쳐 세습되어 온 북한의 정치체제는 김씨 일가 개인이 북한의 핵심 통치기구인 노동당을 보완 기재로 활용하여 행정부, 군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단일정당을 기반으로 한 개인독재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sup>13</sup>

## 2. 권위주의 체제의 권력승계 특징

케디스의 2018년 저서 『How Dictatorships Work: Power, Personalization, and Collapse』에 따르면 권위주의 체제는 정치체제의 개인화 정도가 개인독재의 집권 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4</sup> 즉, 정치체제가 개인화될수록 관료 인사권과 정책결정권이 지도자 개인에게 집중되어 독보적으로 확대되면서, 국가 운영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으로 구분하기 어려워지고,<sup>15</sup> 독재체제의 집권 기간 또한 장기화된다는 것이다. 개인독재 하에서 통치자는 타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고 군부, 단일정당 및 정부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국가의 공권력이 개인의 집권 연장을 위한 사적 도구로 전략하기도 한다.<sup>16</sup> 개인독재의 집권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독재자들은 자신이 이루어

<sup>11</sup> Nathan, Andrew J., "China's changing of the guard: Authoritarian resilience," *Critical Readings on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4 Vols. Set) (Leiden: Brill, 2017), pp. 86~99.

<sup>12</sup> 한국의 경우는 군사정권 시기인 1967년부터 1987년까지 일부 기간만을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하였다. Barbara Geddes, *Paradigms and Sand Castles: Theory Building and Research Design*, p. 72.

<sup>13</sup> 케디스가 권위주의 유형 중 군사독재체제를 북한에 적용시키지 않은 이유는 북한의 수령들이 군의 직책을 가지고 있으나 쿠데타로 집권하거나 군인으로 복무하지 않았고 북한군부는 조선로동당과 수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조직이기 때문에 단일정당-개인독재체제로 분류한 것으로 추측된다.

<sup>14</sup> Barbara Geddes, *How Dictatorships Work: Power, Personalization, and Collaps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p. 88.

<sup>15</sup> Pauline Jones Luong, "Politics in the Periphery: Competing Views of Central Asian States and Societies," Pauline Jones Luong (ed), *The Transformation of Central Asi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2004), pp. 2~5.

<sup>16</sup> Barbara Geddes, "What do we know about democratization after twenty years?" p. 130.

높은 지위와 권력을 더욱 오랜 기간 유지하기를 바라며, 개인독재 일수록 장기간 집권에 더욱 집착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sup>17</sup> 게다가 권력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쿠데타 등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개인독재 내 불확실성과 내부 갈등 요인들이 독재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sup>18</sup> 즉, 권위주의 체제 유형 중 개인독재를 기반으로 하는 정권 교체기 즉, 권력승계 기간이 체제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협하는 가장 불안한 위험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독재정권에 가장 불안정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권력승계를 북한이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권위주의적 특징은 무엇일까? 게르셰브스키(Johannes Gerschewski)는 안정적인 권위주의 정권 유지의 세가지 요소로 ‘정당성(legitimation), 억압(repression), 공동선출(co-optation)’을 제시하였고,<sup>19</sup> 막스베버(Max Weber)는 지배의 개념인 3가지 권위의 유형인 전통적 권위(traditional authority), 카리스마적 권위(charismatic authority), 합법적 권위(legitimate authority)를 강조하였다.<sup>20</sup> 또한 게디스(Barbara Geddes)와 브라운리(Jason Brownlee)는 독재체제 내 권력 공유를 통해 파워엘리트의 경쟁과 갈등을 조율함으로써 권위주의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sup>21</sup> 김창희는 정치이념, 제도화와 직책, 세습권력 후견기반, 정치사회화의 4가지 요소로 북한 권력승계를 비교, 분석하기도 하였다.<sup>22</sup>

사실 권위주의 체제 안정성에 대한 다양한 변수들을 북한 정권의 권력승계 과정에 적용시켜 분석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북한의 정치적 역학 구조뿐만 아니라 권력승계 당시의 통치환경까지 광범위한 요소들을 본 논문에서 모두 다룰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를 위해 분석한 선행연구들과 앞서 소개한 기존 이론들을 접목시켜 권력승계 과정에서 나타나는 권위주의의 특징들을 <그림 1>과 같이

<sup>17</sup> *Ibid.*, pp. 115~144.

<sup>18</sup> Herz, J. H., “The problem of successorship in dictatorial regimes: A study in comparative law and institutions,” *The Journal of Politics*, vol. 14, no. 1 (1952), p. 29.

<sup>19</sup> Gerschewski, Johannes, “The Three Pillars of Stability: Legitimation, Repression, and Co-Optation in Autocratic Regimes,” *Democratization*, vol. 20, no. 1 (2013), pp. 1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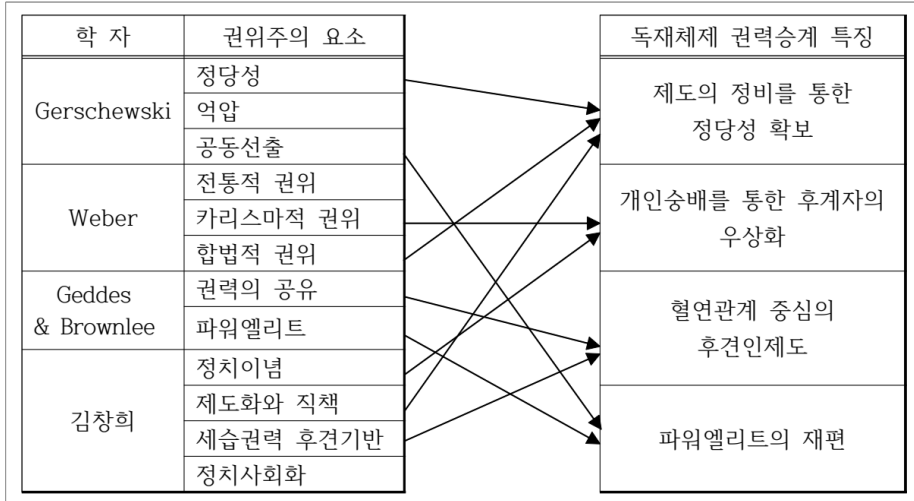
<sup>20</sup> 베버, 박성환 역, 『경제와 사회』(서울 : 문학과 지성사, 1997), p. 408.

<sup>21</sup> Barbara Geddes, “What do we know about democratization after twenty years?” pp. 115~144; Jason Brownlee, “...And Yet They Persist: Explaining Survival and Transition in Neopatrimonial Regimes,”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 37, no. 3 (2002), pp. 35~63.

<sup>22</sup> 김창희, “북한 권력승계의 정치: 이념·제도화·인적기반·사회화,” 『한국동북아논총』, 제64호 (2012), pp. 79~104.

도출해 본 결과, 개인독재 일수록 권력승계를 위해 ‘제도의 정비를 통한 정당성 확보’, ‘개인승배를 통한 후계자의 이상화’, ‘혈연관계 중심의 후견인제도’와 이를 포함한 ‘파워엘리트의 재편’의 4가지 특징들을 통해 안정적인 권력승계를 수행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 권위주의 권력승계의 4가지 특징



출처: 저자 작성

### 가. 제도의 정비

독재정권의 새로운 지도자는 권력승계 시 경쟁 세력 또는 민중으로부터 권력 집중에 대한 견제와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간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 해온 독재자일수록 권력승계를 포함한 권력 유지를 목적으로 제도를 정비하여 언 제든 제기될 수 있는 정치적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 공고한 정치적 기반을 구축한 다.<sup>23</sup> 이는 합법적 권위(legitimate authority)에 기반을 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강조함으로써 법에 따른 권력승계를 정당화한다.

<sup>23</sup> Gandhi, Jennifer and Przeworski, Adam. “Authoritarian Institutions and the Survival of Autocrat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40, no. 11 (2007), pp. 1279~1284.



## 나. 개인숭배를 통한 이상화

독재자는 국민이 자신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게 하여 권력의 정당성을 강조한다.<sup>24</sup> 이를 위해 권위주의 체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핵심 기제가 카리스마적 권위(charismatic authority), 즉 개인의 이상화이다. 독재자의 이상화는 지도자의 초인간적 자질, 탁월한 지도력 등을 높게 부각시켜 우월한 능력을 지닌 독재자에 대한 고양된 경외심으로 그의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옳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신성함, 영웅적 특성, 담대함 등 카리스마적인 독재자의 자질은 합리적 지배와 복종심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한다.<sup>25</sup>

## 다. 후견인제도

권력승계 기간은 권력이 이양되는 시기이자, 독재자에게 주어진 모든 권력이 대내외적인 위협으로부터 노출되는 시기이다. 권력승계 시기에 공고한 권력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지도자 주변에는 변하지 않는 충성과 믿음으로 정권을 보필하는 엘리트들이 부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숙적의 정치적 공세나 민중봉기가 발생한다면 지도자 혼자만의 능력으로 도전과 위협에 원만히 대처하지 못해 종국에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sup>26</sup> 따라서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안정적인 권력승계를 보장하기 위해, 혈연관계인 후견인(guardian)을 지목하여 신생 정권을 지원하도록 한다.<sup>27</sup> 후견인을 통한 권력의 공유는 민주주의 체제보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더욱 빈번히 사용되는 핵심적 기재로 작용해왔다.<sup>28</sup>

<sup>24</sup> 이윤규, “북한 김정은 독재체제에서의 이상화: 김정일·김정은 이상화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전략연구』, 통권 제63호 (2014), pp. 174~175.

<sup>25</sup> 전성우, 『막스 베버 사회학의 쟁점들』 (서울: 민음사, 1995), pp. 238~241; Max Weber,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pp. 212~213.

<sup>26</sup> 김진하, “독재체제 안정화 경로와 북한의 가산제(家産制) 권력집중 전략,” 『국가전략』, 제27권 2호 (2021), p. 64.

<sup>27</sup> 후견주의는 위계가 분명한 후견인과 수혜자 양자 간에 반복되는 거래의 대가로 필요한 자원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Allen Hicken, “Clientelism,”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4 (June, 2011), pp. 290~294.

<sup>28</sup> Paik, Wooyeal and Richard Baum, “Cliente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Local Patronage Networks in Post-Reform China,”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29, no. 4 (2014), pp. 675~702.

## 라. 파워엘리트의 재편

“한 사람의 독재자에 의한 지배(rule by one)는 불가능하며 존재한 적도, 가능할 수도 없다.”<sup>29</sup>는 명제처럼 독재자 개인에게 집중된 모든 권력은 항상 대내외의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독재자는 파워엘리트의 재편과 권력 공유를 통해 정권의 생존과 안정성을 지속시키려 한다.<sup>30</sup> 그렇다면 북한의 권력승계에 영향을 주는 ‘북한의 파워엘리트는 누구인가?’ 엘리트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에서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또는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엘리트를 대중(mass)과 대립되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sup>31</sup> 반면 밀스(C. Wright Mills)는 그의 책 『The power Elite(1979)』에서 파워엘리트를 “국가의 핵심적 정책 결정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업, 행정부, 군부의 최고지도자로 구성된 응집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조로서 의미있는 가치를 배분하는 데 있어서 가치를 가장 많이 소유한 소수, 결정권을 가진 사람 또는 소수집단”으로 정의하면서<sup>32</sup> 체제와 관계없이 사회는 엘리트와 대중의 수직관계로 구성되며, 엘리트에 의한 통치와 지배는 가치 분배의 권한을 가진 소수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불가피한 것으로 설명하였다.<sup>33</sup>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개인, 단일정당, 군부가 사회 가치를 분배하는가에 따라 정치체제가 결정되는데 <표 2>의 세 가지 질문을 활용하여 권력의 지표로 측정할 수 있다.<sup>34</sup>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권위주의 정치체제에서 ‘누가 중요한 제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중요한 의사 결정 그룹에 참여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파워엘리트를 구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sup>29</sup> Bruce Bueno de Mesquita and Alastair Smith, *The Dictator's Handbook: Why Bad Behavior is Almost Always Good Politics* (New York: PublicAffairs, 2011), p. 2.

<sup>30</sup> 정선미, “카자흐스탄 권위주의 체제 성립과 권력승계: 권력의 제도화와 정당성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28권 3호 (2022), pp. 153~155.

<sup>31</sup> The Cambridge English Dictionary. <<https://dictionary.cambridge.org/us/dictionary/english/elite>> (검색일: 2023.1.7.); Suzanne Keller,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and The Free Press, 1979), p. 27.

<sup>32</sup> Mills, C. Wright and Alan Wolfe, *The power eli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p. 1~8.

<sup>33</sup> Dryzek, S & P. Dunleavy, *Theories of the Democratic State*. 6th. (London: Macmillan, 2009), p. 57.

<sup>34</sup> Domhoff, G. William, *Who Rules America?: The Corporate Rich, White Nationalist Republicans, and Inclusionary Democrats in the 2020s* (New York: Routledge, 2021), pp. 29~35.

〈표 2〉 권력지표 측정을 위한 세가지 질문

구분	질문	측정내용
1	‘누가 이익을 가지는가?’ (who benefits?)	• 경제적 가치와 수입, 사회적 지위 등 사회적 가치의 집단 / 계급 간 분배의 정도
2	‘누가 통치하는가?’ (who governs?)	• 누가 중요한 제도의 직위를 차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 집단에 참여하는가의 정도
3	‘누가 승리하는가?’ (who wins?)	• 사회 쟁점 이슈에 대하여 누가 성공적으로 정책대안을 주도하고, 수정하고, 집행하는가의 정도

출처: 저자 작성

### Ⅲ. 북한 권력승계 과정의 구분과 단계별 특징

#### 1. 북한 권력승계 과정의 구분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에 대해 정성장은 후계체계 구축과정을 ① 후계수업 단계, ② 후계자 내정단계, ③ 후계체계의 대내적 공식화 단계, ④ 후계체계의 대외적 공식화 단계로 나누어 비교하였고,<sup>35</sup> 한기범은 ① 주요 직위 및 정책결정권의 단계적 이전, ② 공식 권력승계, ③ 승계 직후 초기 안정화 조치로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을 설명하였다.<sup>36</sup> 또한 이기동은 권력승계 과정을 ① 후계자 유일지도체계, ② 후계자 유일영도체계, ③ 수령 유일영도체계의 3단계로 구분하였고,<sup>37</sup> 김태효와 강채연은 북한 권력승계 과정을 주기(cycle) 모델로 제시하며, ① 후계자 임명 전후 권력투쟁기, ② 새로운 후계자의 권력장악기, ③ 후계자의 권력 공고화기의 3단계 주기로 구분하였다.<sup>38</sup>

권위주의 이론을 통해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과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 논문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승계 과정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시기별로 나타나는 권위주의 체제의 특징을 동일한 기준으로 살펴보

<sup>35</sup> 정성장, “김정은 후계체계의 공식화와 북한 권력체계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제2호 (2010), pp. 159~188.

<sup>36</sup> 한기범, “권력승계 시기 북한의 지배구조와 대내외 정책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pp. 81~106.

<sup>37</sup> 이기동, “김정은의 권력승계 과정과 권력구조,”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제2호 (2012), pp. 1~21.

<sup>38</sup> 김태효, 강채연, “북한 권력승계의 주기(週期) 모델과 북한 체제의 작동원리,” 『국제정치논총』, 제58집 2호 (2018), pp. 109~143.

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승계 과정을 살펴보고, 단계별 특징과 권력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기존 연구자들의 시기 구분을 준용하여 권력승계 과정을 크게 후계자 내정단계, 후계자 공식화 단계, 권력승계 후 안정화 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3〉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 구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정성장	후계수업 단계	내정 단계	대내적 공식화단계	대외적 공식화단계
한기범	권력 단계적 이전	공식 권력승계	승계직후 초기 안정화	-
이기동	후계자 유일지도체계	후계자 유일영도체계	수령 유일영도체계	-
김태효외	임명 전후 권력투쟁기	후계자의 권력장악기	후계자의 권력공고기	-
저자 분류	후계자 내정단계	후계자 공식화 단계	권력승계 후 안정화 단계	

출처: 저자 작성

## 2. 북한 권력승계 과정의 단계별 특징

김정일이 후계자로 내정되어 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1973년 9월 당 조직지도부장에 임명되어 당 조직을 통해 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제2단계 후계자 공식화 단계는 1980년 10월에 제6차 당 대회부터 1994년 김일성 사망 시까지를 김일성과 김정일의 공동집권 기간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 제3단계는 권력승계 후 안정화 단계로 1994년부터 1998년 10기 최고인민회의까지로 시기를 한정 지어 살펴보겠다. 김정일에 비해 김정은의 등장과 후계자 내정과정은 김정일보다 은밀하고 신속히 진행되었으며, 후계자로서 공식화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정일이 사망함으로써 권력승계 후 안정화를 위한 과정 또한 급속히 이루어졌다. 김정은의 권력승계 과정은 2006년 김정은이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졸업한 이후의 시점부터 2010년 9월 28일 후계체계가 공식화되기 이전까지의 과정을 1단계로 구분하고, 2단계는 이후부터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시까지로 구분하였으며, 제3단계는 권력승계 후 안정화 단계로 김정은이 2011년 12월 19일 최고사령관 직책을 이양받은 시점으로부터 2017년 6차 핵실험까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표 4〉 단계별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

구분	1단계(후계자 내정)	2단계(후계자 공식화)	3단계(권력승계 후 안정화)
김정일	1973. 9. ~ 1980. 10.	1980 10. ~ 1994. 7.	1994. 7. ~ 1998. 9.
김정은	2006. 12. ~ 2010. 9.	2010. 9. ~ 2011. 12.	2011. 12. ~ 2017. 9.

출처: 저자 작성

### 가. 1단계 : 후계자 내정 단계

김정일은 만 19세였던 1961년, 노동당에 입당하였고, 1964년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이후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지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sup>39</sup> 1967년부터 김정일은 선전선동부에서 지도원과 과장을 거치며, 1969년 9월 조선로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및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지냈다.<sup>40</sup> 이후 노동당 중앙당 문화예술부장, 중앙당 조직 및 선전비서, 정치위원회 위원 등의 보직을 거치면서, 1972년 10월 조선로동당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고, 1973년 9월, 30대 초반의 김정일은 당 중앙위원회 핵심 요직인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의 책임비서로 보임되었다. 다음 해인 1974년 2월에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으로 선출되면서 사실상 김일성의 후계자로 지명되었고, 이듬해 1974년 2월, 김정일은 당 중앙위원회 제5기 8차 전원회의에서 후계자로 공식화되었다.

김정은은 1983년 1월 8일, 김정일의 세 번째 부인 고영희의 차남으로 태어나 1996년 여름부터 2001년 1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스위스 베른에서 수학하였다. 이후 귀국한 그는 2002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서 4년간 군사학을 전공하였다. 3남인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명된 시기는 김정남, 김정철이 후계자 검증과정에서 김정일의 신임을 얻지 못한 2006년 이후로 추정된다.<sup>41</sup> 이후 김정은에 대한 권력승계는 2008년 여름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급속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결정되기 전인 2008년 12월에

<sup>39</sup> 이찬행, 『김정일』 (서울: 백산서당, 2001), p. 1057.

<sup>40</sup> 정찬현, 『결에서 본 김정일』 (서울: 토지, 1999), p. 120.

<sup>41</sup>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동지의 위대성 교양자료』에서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졸업식과 주체의 선군혁명위업 계승 의지를 연결하고 있다. “마이니치 보도 3남 ‘김정은 우상화 강연자료’ 전문,” 『Daily NK』, 2009.10.6., <<https://www.dailynk.com/%eb%a7%88%ec%9d%b4%eb%8b%88%ec%b9%98-%eb%b3%b4%eb%8f%84-3%eb%82%a8-%ea%b9%80%ec%a0%95%ec%9d%80-%ec%9a%b0%ec%83%81%ed%99%94-%ea%b0%95/>> (검색일 : 2023.3.14.).

북한 노동당의 조직지도부가 고위 당 간부들에게 후계자 결정에 관한 내용을 시사하는 문건을 내리고 사상교육을 지시하였다. 이후 김정일은 김정은의 생일인 2009년 1월 8일 김정은을 자신의 후계자로 결정했다는 교시를 하달하였다.<sup>42</sup>

김정일과 김정은의 ‘후계자 내정단계’의 차이점은 김정일이 당내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두각을 나타내며 내정된 후계자로 인식될 수 있는 당 중앙위원회와 선전담당 비서로 활동한 반면, 김정은은 약 4년 동안 당의 보직을 부여받지 않은 채 은밀히 후계자 내정단계를 거쳤다는 점이다.

## 나. 2단계 : 후계자 공식화 단계

1980년 10월, 10년 만에 개최된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김일성은 김정일을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원회 비서, 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자신을 계승할 후계자로 전면에 내세웠다. 이후 김일성은 1991년 12월 24일, 김정일을 당 중앙위원회 제6기 19차 전원회의에서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고, 이듬해 4월 20일에는 원수로 임명함으로써 김정일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구축하였다. 또한 김일성은 1992년 개정헌법을 통해 국방위원장직을 국가주석직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김정일이 국가주석직을 승계하기 전에 국방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도록 사전작업을 하였고, 1993년 김정일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였다.<sup>43</sup> 반면 김정은은 김정일과 달리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단일 직책만 가지고, 2010년 당 대표자회를 통해 후계자로 공식화되었다. 일부에서는 김정은에게 부여된 당 직책을 보며 의구심을 가졌지만 김정은이 맡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책은 1980년 당시 김정일의 직함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직보다 더 높은 상위 직책이었다. 김정일은 김정은의 짧은 당직 기간을 고려하여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비서국 직위를 부여하지 않았고, 김정은이 먼저 군부를 장악한 뒤 순차적으로 당에서의 영향력을 넓힐 수 있도록 ‘집중과 선택’의 전략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김정일과 김정은의 후계자 공식화 단계를 비교해 보면, 김정일이 후계자로 내정된 후 공식화되기까지는 7년,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화된 기간은 1년 남짓으로,

<sup>42</sup> “북한의 일제 타격식 포사격은 군 장악 나선 김정은의 작품?,” 『시사저널』, 2010.2.24.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389>> (검색일 : 2023.3.16.).

<sup>43</sup> “〈민족통일연구원 세미나〉 남북한관계 다소 진전예상,” 『연합뉴스』, 1993.12.1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3724670?sid=100>> (검색일 : 2023.3.16.).

김정은의 권력승계 진행 과정이 김정일에 비해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김정일과 김정은의 후계자 공식화 단계인 2단계를 비교하면, 김정일은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계자로 추대된 반면, 김정은은 당 대표자회에서 후계자 지위를 부여받았다. 이는 권력승계 전임자의 건강과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김정일의 경우, 아버지 김일성의 건강에 문제가 없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후계자로 공식화된 반면, 김정은의 경우는 김정일의 건강 악화로 인해 과거보다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급하게 후계자의 공식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다. 3단계 : 권력승계 후 안정화 단계

1994년 7월 김일성이 갑작스럽게 사망함으로써, 김정일은 명실상부한 북한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러나 김일성 사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김정일은 과거 김일성이 가지고 있던 노동당 총비서의 직위에 오르지 않은 채 유훈통치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1997년 10월 8일, 김정일은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된 후, 1998년 9월 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서 주석제를 폐지하고 권한이 더욱 강화된 국방위원장 자리에 재등극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에야 북한의 최고 직책인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국 총비서,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위원장, 최고사령관을 맡으며 북한을 통치하였다.

3단계에 있어 김정은의 권력승계 절차 또한 김정일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김정일 사후인 2012년 4월 11일, 김정은은 제4차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에서 아버지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하고 자신은 새롭게 신설한 조선로동당 ‘제1비서’의 직책에 취임하면서 당권 장악을 공식화했다. 과거 김정일이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여 ‘국가주석제’를 폐지하였던 과정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당시 김정은이 당과 군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와 예상과 달리 김정은은 후견인 장성택과 리영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3단계 권력승계 이후 안정기’에 안착할 수 있었다. 이후 김정은은 2016년 5월 6일, 36년 만에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를 통해 노동당 위원장직을 신설하여 취임하면서 당 중심으로 국가 운영체제를 구축하였으며,<sup>44</sup> 2016년 6월 29일, 최고인

<sup>44</sup> “北 김정은 ‘신설’ 노동당 위원장 취임…김일성 따라 당 중시(종합2보), 『매일경제』, 2016.5.9. (<https://www.mk.co.kr/news/photo/7335347>) (검색일 : 2023.3.21.).

민회의를 통해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하여 국무위원장에 추대되었다. 이어 2017년, 2월 김정은은 장남 김정남을 암살하고, 9월에는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권력승계의 완성을 대내외에 공표하였다.

김정일의 3단계 권력계승 과정과 비교한 김정은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권력승계의 급진성과 직접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김정일이 유훈통치 기간을 두고 권력승계를 마무리한 데 반해, 김정은은 김정일 사후 지체 없이 북한 권력기관의 최고 직책을 계승하여 직접적인 통치를 했다. 또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후계자 수업을 해온 김정일과는 달리 짧고 신속하게 이루어진 권력승계 기간을 보완하기 위해 김정일이 정해 놓은 정치적 후견인의 비호 아래 권력승계 과정을 안정화시킨 뒤 후견인의 숙청을 통해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 IV. 권력승계 과정에 나타난 권위주의 체제의 특징

##### 1. 제도의 정비를 통한 정당성 확보 (1단계 초기)

권력승계 과정을 앞두고 선행되었던 제도적 정비는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었다. 권력승계에 관한 규칙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회주의 독재체제 특성상 제도의 정비가 선행되지 않으면 쿠데타를 포함한 정적들의 권력투쟁을 촉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45</sup> 제도의 정비는 주로 1단계 후계자 내정단계에서 이루어졌으며,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승계를 위한 제도의 정비는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내정되기 이전인 1972년, 김일성은 전면적으로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권력세습의 기반을 마련하였다.<sup>46</sup> 1972년 헌법에서는 중앙인민위원회에 권력을 집중시켰고, 국가주석제를 신설하여 일인 집단지도체제를 확립하였으며, 1973년을 전후하여 김정일을 ‘당 중앙’의 후계자 자리로 배치하였다. 1973년 9월에 비공개로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5기

<sup>45</sup> 오경섭,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승계 비교: 제도와 리더십의 동학을 중심으로』 (서울: 세종연구소, 2012), p. 12.

<sup>46</sup>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한 사회주의 헌법 개정과 주석제 신설은 후계 구도 가시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스킨키 마사유키, 유영구 옮김.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서울: 중앙일보사, 1994), pp. 90~92; 1972년 최고인민회의의 의미에 관해서는 김상범, “김정일의 권력승계 과정에 대한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24권 2호 (2021)을 참고할 것.



7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김정일을 당권의 핵심인 중앙당 조직 및 선전선동 비서로 선임하면서 “김정일을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로 우리 당과 인민의 지도자로 추대하는데 대한 결정을 채택했다.”고 공표함으로써 권력세습을 위한 김정일의 제도적 기반과 여건을 강화하였다.<sup>47</sup>

김정일 또한 김정일의 권력세습을 위해 정치적 절차와 제도를 정비하였는데, 2009년 4월, 김정일은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의 기능을 명분화하면서 후계자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다. 또한 김정일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우려하여 2010년 6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장성택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함으로써 후계구도 구축을 위한 후견인이자 실무 총책임자로 지목하였다.<sup>48</sup> 이후 김정일은 2010년 9월 28일, 당 대표자회를 통해 권력승계를 위한 당 조직 정비를 단행하여 후계자 김정일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김정일은 제도와 조직을 정비함으로써 권력승계에 대한 불만 세력을 감시하고 억제하는 정치과정을 단행한 것이다.

## 2. 개인승배를 통한 후계자의 우상화 (1단계 초기~ 2단계 초기)

북한의 후계자 우상화는 1단계 후계자 내정단계 초기부터 시작되어 2단계 후계자 공식화 단계 초기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1973년 9월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로 추대된 김정일의 호칭은 당 내부에서부터 ‘친애하는 당 중앙’, ‘영명한 친애하는 지도자’ 등으로 불리기 시작하였고 이후, 각종 서적, 출판물, 공식 간행물에서 ‘영광스러운 당 중앙’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였다.<sup>49</sup> 1975년부터는 ‘친애하는 지도자’라는 호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되었고,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등 후계자 김정일의 입지가 고양되었다. 더욱이 1975년 이후, 김정일은 김일성에게 보고되는 모든 군의 보고문건 및 비준문건 등을 반드시 본인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보고체계를 개편하였다. 이 시기부터 북한군 병영과 사무실에는 일제히 김정일의 초상화가 걸리기 시작하였다.<sup>50</sup>

후계자 김정일은 권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3년

<sup>47</sup> 『조총련 학습자료』 (1982.2.), 재인용: 백승주,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서울: 통일교육원, 2012), p. 20.

<sup>48</sup> 한기범, 위의 글, p. 87.

<sup>49</sup> “70년대 北문건서 ‘당중앙=김정일’ 입증,” 『연합뉴스』, 2011.4.26.: <<https://www.yna.co.kr/view/AKR20110424001000014>> (검색일: 2023.2.8.).

<sup>50</sup> 유영구, “북한의 정치·군사관계의 변천과 군내의 정치조직 운영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제4권 제3호 (1997), pp. 215~218.

만인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8.18 도끼만행 사건'을 기습적으로 감행하여 북한 내부적으로 당과 군 원로로부터 호응을 이끌어 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만 부각되던 자신의 대담성을 군사적으로도 각인시켜 후계자로서의 자질을 과시하였다. 또한 김정일은 공식 후계자가 된 이후인 1983년 10월 9일에도 버마(Burma)를 공식 방문하여 아웅산 묘소를 참배하던 전두환 대통령 일행을 폭탄테러로 암살하려 한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을 자행하였다. 이는 시기상 공식 후계자가 된 김정일이 군부 내 확고한 지지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내부적 동기에 의해 도발을 자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후계자로서 김정일은 지명 직후인 2009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일과 김정일이 함께하는 현지 지도 모습을 뉴스로, 김정일을 찬양하는 노래를 라디오로 송출하기 시작하였다.<sup>51</sup> 김정일은 아버지 김정일이 무력 도발을 통해 군권 장악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듯이 2009년 4월 5일 장거리 로켓 발사, 2009년 5월 25일의 2차 핵실험 등 남한에 대한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군부에 대한 자신의 입지와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이후 김정일은 2010년 3월 26일의 천안함 폭침사건, 2010년 11월 24일 연평도 포격사건 등을 통해 자신의 군사적 자질을 과시함으로써, 김정일의 '8.18도끼만행 사건'에 견줄만한 지도자의 자질을 가졌음을 입증하여 군부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북한의 선전 매체들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천재적 영지와 지략을 지닌 군사 영재", "현대 군사과학과 기술에 정통한 천재"라고 김정일을 표현하면서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와 선전 선동을 이어갔다.<sup>52</sup>

### 3. 후견인제도를 통한 안정적 권력승계 (1단계 후반~ 3단계 초기)

후견인제도는 1단계 후계자 내정단계에서부터 3단계 권력승계 후 안정화 단계 초기까지 나타난다. 김정일은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등의 보직을 거치면서 후계자에 내정되었고 이후 김일성과 20년이 넘게 공동체제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권력승계를 이루어 냈다. 김정일에게는 김일성이 누구보다 든든한

<sup>51</sup> 2009년 10월 9일 북한 조선중앙TV에서는 김정일을 찬양하는 '발걸음'이라는 노래를 방송하고 2010년부터 북한 주민들에게 본격적으로 보급하였다. "김 대장 발걸음 2월의 위업 받들어" 등 노래 가사 처럼 2010년 9월 28일, 김정일에게 대장 호칭이 부여되었다. 이영중, 『후계자 김정일』 (서울: 늘봄플러스, 2010), pp. 18~21.

<sup>52</sup> "마이니치 보도 3남 '김정은 우상화 강연자료 전문,' 앞의 글.

강력한 후견인이었다. 그러나金正은의 등장과 후계자 내정과정은 김정일의 건강 상태로 인해 김정일보다 은밀하고 신속히 진행되었고,金正은의 권력승계 과정은 김정일에 비해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했다. 건강이 악화된 김정일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金正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2009년 4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2010년 6월에는 서열 2위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金正은의 후견인으로 안정적인 승계를 지원하도록 여건을 마련하였다. 장성택의 주변에는 당·정의 북한 파워엘리트들이 항상 운집해있어 기반이 약한金正은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 김정일은金正은의 당정활동을 보좌할 후견인인 장성택의 발탁과 함께 또 다른 핵심기관 군부의 장악을 위해 총참모장인 리영호 또한 후견인으로 지목하였다.<sup>53</sup> 리영호는 2009년 2월 11일, 인민군 총참모장에 임명된 인물로金正은이 대장 칭호를 받을 때 차수로 승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 정치국 위원, 중앙군사위 위원으로 선출된 김정일의 신복(臣僕)이었다. 그러나 3단계인 권력승계 안정화 단계에서 군부의 장악이 가시화되자金正은은 2012년 7월 15일, 리영호의 모든 직책을 해임한 뒤 숙청하면서,<sup>54</sup> 정통 관료 출신인 최룡해를 인민군 총정치국장에 임명하여 군부를 장악하였다. 또한金正은은 2013년 12월 12일, 고모부 장성택 마저도 ‘반당, 반혁명, 종파행위’의 죄명으로 숙청하였다.<sup>55</sup> 권력승계가 안정화 단계에 이르자金正은은 김정일의 영구차를 호위하던 후견인 그룹인 ‘운구차 7인’을 외면하고, 장성택의 숙청을 모의했던 삼지연 8인을 새로운 파워엘리트로 선택하는 세대교체를 단행한 것이다.<sup>56</sup>金正은은 ‘당 기능의 정상화’와 ‘군부의 장악’을 위해 김정일이 발탁한 후견인 리영호와 장성택을 숙청함으로써金正은 체제의 공고화와 안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sup>53</sup> 리영호는金正은이 후계자로 지목된 이후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金正은이 군부를 장악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권양주, “북한, 리영호 총참모장 해임 배경과 함의,” (한국국방연구원, 동북아안보정세분석, 2021.7.17.)

<sup>54</sup> “북한 장성택 실각, 北 매체 공식 발표 없어,” 『프레스리안』, 2013.12.4.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09897>> (검색일: 2023.2.12.);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15일 정치국 회의를 열어 리영호를 신변관계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조선중앙통신』, 2012.7.16.

<sup>55</sup> 권력승계 이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지 2년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정권 실세이자 후견인인 장성택을 공개적으로 숙청할 정도로金正은은 입지를 다지고 있었다. 북한연구학회, 『김정은 시대의 정치와 외교: 선군인가, 선경인가』 (서울: 한울, 2014), pp. 209~237.

<sup>56</sup> 운구차 7인은 장성택, 김기남, 최태복, 리영호, 김영춘, 김정각, 우동춘을 의미하며, 삼지연 8인은 황병서, 김원홍, 김병호, 김양건, 박태성, 한광상, 홍영철, 마원춘을 말한다.

#### 4. 파워엘리트의 재편 (2단계 후반~ 3단계 초기)

독재자 혼자서 한 국가를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독재자는 주요 기관과 엘리트를 중심으로 통치연합을 구성하여 국가를 운영해 나간다.<sup>57</sup> 하지만 북한의 개별 기관과 엘리트 간에도 권력의 위계는 존재하고 고정되어 있지 않다. 특히, 권력승계 기간의 후계자는 권력의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과 이권의 분배’를 통해 파워엘리트들을 주기적으로 순환시켜 충성 경쟁을 유도한다.<sup>58</sup> 북한의 파워엘리트를 식별하기 위한 기존 연구들은 북한 파워엘리트의 다수가 당직과 여러 분야의 보직을 겸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개별인원에 대한 동향 분석, 경제·군사·정치 분야별 변화추이 등이 파워엘리트 분석 주제로 다루어졌다. 따라서 권력승계 과정에서 중심이 되는 기관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구분해내기에는 제한이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북한의 파워엘리트 기관’을 식별을 위해서 북한 권력기구도에 명시된 당정 기구 즉, 당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국, 비서국, 당중앙검사위원회, 국무위원회 즉, 북한의 5대 주요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북한 파워엘리트의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생각된다.<sup>59</sup> 특정 엘리트의 권한은 상당 부분 그가 속한 조직의 위상과 역할, 엘리트의 조직 내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먼저 어떤 조직과 기관에 인원이 확충되어 권력이 집중되는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기관별 구성원 비율을 중심으로 북한 파워엘리트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면서, 북한 현지도도 수행인원의 변화 양상을 질적으로 분석한 기존 논문을 제시함으로써 파워엘리트 변화에 대한 질적인 측면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북한 권력기구도를 중심으로 권력기관들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표 5>와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김정은의 권력승계 2단계에서 3단계 단계로 넘어가는 2011년과 2012년의 구성원 비율이 가장 눈에 띄게 변화하였고, 이 중 정치국과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다른 기관보다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국은 당의 최고 정책결정 기관으로, 당 중앙위원회 위원 중 권력 서열이 가장 높은 간부들이 모여있는 권력 조직이다. 그러나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내세우면서 정치국의 기능은 상당 부분 군부에 집중되었

<sup>57</sup> 박형중 외, “수명독재 하에서 권력과 이권을 둘러싼 갈등 동학 그리고 장성택 숙청,”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1호 (2014), pp. 3~4.

<sup>58</sup> 박영자, “김정은 정권의 핵심 파워엘리트,” 『월간 북한』, 2017년 10월, pp. 38~40.

<sup>59</sup> 북한의 권력기관 중 최고인민회의는 인원이 687명으로 고정되어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다. 이에 따라 1980년 정점을 찍으며 34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정치국은 이후 권력에서 멀어졌으며, <표 5>와 같이 2010년에는 9명까지 인원이 축소되었다.<sup>60</sup> 그러나 정치국의 위상은 2011년 12월, 김정일 사후부터 복원되기 시작하여,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그 위상과 역할은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12년 4월, 제4차 당 대표자회 이후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관장하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면서 이전보다도 실질적인 위상도 제고되었다.<sup>61</sup>

<표 5> 북한 권력승계와 파워엘리트의 변화

단위 : 명

구분	정치국	비서국 (정무국)	당중앙검사위원회 (검열위원회)	당중앙군사위 원회	국무위원회 (국방위원회)
1999	15	9	6	14	10
2000	14	9	6	13	10
2002	14	10	6	13	10
2003	14	10	6	12	10
2004	14	9	6	12	9
2005	14	9	6	12	9
2006	13	9	6	12	8
2007	12	8	6	11	8
2008	12	7	5	11	8
2009	11	7	5	11	9
2010	9	6	7	8	13
2011	30	11	7	17	11
2012	36	9	7	21	12
2013	30	9	7	19	12
2014	27	10	6	19	9
2015	22	9	6	17	9
2016	28	10	7	12	12
2018.1	31	12	7	12	12
2018.12	29	12	7	14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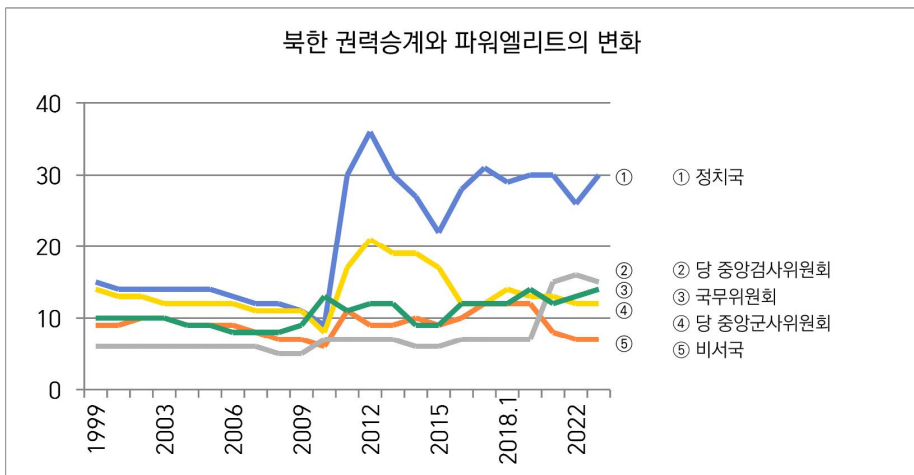
<sup>60</sup> 정성장, 앞의 글, p. 175.

<sup>61</sup> 2012년 4월의 정치국 상무위원과 위원, 후보 인원의 명단 및 약력은 박영자, “독재정치 이론으로 본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 조선노동당 ‘파워엘리트’ 실태와 관계망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28권 제4호 (2012), pp. 122~126을 참고할 것.

구분	정치국	비서국 (정무국)	당중앙검사위원회 (검열위원회)	당중앙군사위 원회	국무위원회 (국방위원회)
2020	30	12	7	13	14
2021	30	8	15	13	12
2022	26	7	16	12	13
2023	30	7	15	12	14

출처: 통일부 북한정보포탈과 언론에 공개된 북한 권력기구조(1999년~2023년)를 중심으로 분석함.  
 <<https://nkinfo.unikorea.go.kr/nkp/pblictv/viewPblictv.do>> (검색일: 2023.2.27.).

〈그림 2〉 북한 권력승계와 파워엘리트의 변화



출처: 저자 작성

정치국은 당의 최고 정책결정 기관으로, 당 중앙위원회 위원 중 권력 서열이 가장 높은 간부들이 모여있는 권력 조직이다. 그러나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내세우면서 정치국의 기능은 상당 부분 군부에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 정점을 찍으며 34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정치국은 이후 권력에서 멀어졌으며, <표 5>와 같이 2010년에는 9명까지 인원이 축소되었다.<sup>62</sup> 그러나 정치국의 위상은 2011년 12월, 김정일 사후부터 복원되기 시작하여, 김정은의 권력승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그 위상과 역할은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12년 4월, 제4차 당 대표자회 이후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관장하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의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면서 이전보다도 실질적인 위

<sup>62</sup> 정성장, 위의 글, p. 175.

상도 제고되었다.<sup>63</sup>

정치국과 더불어 당 중앙군사위원회 또한 북한 권력승계의 중심에 있다. 김정일은 권력승계 초기 단계부터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군 지휘관들을 비롯한 군부에 대한 인사권과 통제권을 장악하였다. 군부를 장악한 이후 김정일은 당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당내 조직·사상적 통제권과 인사권, 재정권을 확대·장악함으로써 권력승계 이후 독재체제의 안정화를 위해 파워엘리트를 활용하였다. 김정은 또한 김정일이 가지고 있던 국방위원장의 직책보다 당 중앙군사위원장의 직책을 먼저 승계하면서 당권을 중심으로 당과 군의 인사권과 통제권을 장악해 나갔다. 김정은은 군부를 통제하고 견제하기 위한 당 핵심기구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여 제도적 기반 하에 군권 장악을 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또 다른 파워엘리트 기관인 정치국과 더불어 2012년 4월, 제4차 당 대표자회 이후 김정은의 측근들이 대거 배치되면서 권력승계 3단계 초기부터 이미 ‘김정은의 군대’로 변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64</sup>

파워엘리트의 변화를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통치자의 현지도도 수행인원의 양상을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분석 방법이 될 수 있다. 김정은의 현지도도 수행분석을 통해 파워엘리트의 수행빈도, 수행인원의 규모 등을 확인하여 파워엘리트의 변화 양상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권력승계 3단계 과정 중 나타난 파워엘리트의 변화에 대해 표윤신·허재영, 진희관, 김인수의 논문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황병서 등이 주축이 되는 군 출신 인사들이 현지도도를 수행하였지만 2016년 이후에는 조용원, 최룡해 등 당에 기반을 둔 파워엘리트들이 현지도도를 수행함으로써 질적인 권력구조 재편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sup>65</sup>

<sup>63</sup> 2012년 4월의 정치국 상무위원과 위원, 후보 인원의 명단 및 약력은 박영자, “독재정치 이론으로 본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 조선노동당 ‘파워엘리트’ 실태와 관계망을 중심으로,” 『국방정책 연구』, 제28권 제4호 (2012), pp. 122~126을 참고할 것.

<sup>64</sup> 김정은 권력승계 3단계의 당 중앙군사위원회 구성은 박영자, 앞의 글, pp. 131~133를 참고할 것.

<sup>65</sup> 현지도도를 통한 파워엘리트 변화는 다음 선행연구를 참고할 것. 표윤신·허재영,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성격은 변화하고 있는가?: 당·정·군 현지도도 네트워크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제35권 제3호 (2019), pp. 97~122; 진희관, “김정은 정권의 현지도도 수행빈도를 통해 본 엘리트 변동 연구: 주요 인사의 노동신문 등장빈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31권 제4호 (2015), pp. 1~38; 김인수, “북한 권력엘리트의 김정은 친화성 지수 개발-장성택 숙청 이후 현지도도 수행 인원의 변화를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9집 1호 (2017), pp. 131~161.

## V. 결론

냉전시대 권위주의 체제의 권력승계를 연구한 홀스(Holms)는 안정적 권력승계가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권력승계 이후 5년간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가?’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sup>66</sup> 홀스 교수의 기준을 준용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사후인 2011년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권력을 승계한 뒤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 앞서 제시한 연구 질문인 ‘북한이 오랜 기간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과 3대 권력세습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을 고찰한 결과 ‘북한은 권위주의 체제의 특성을 반영한 안정적인 권력승계 과정을 답습함으로써 독재체제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내부 갈등 요인들을 극복하여 독재정권 유지가 가능하였다.’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권위주의 체제에서 독재자 개인에게 집중된 권력은 승계 과정에서 쿠데타를 포함한 다양한 위협이 되어 나타날 수 있으나 북한은 권위주의 체제의 특징 4가지를 기반으로 내부적인 위협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권력승계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정권 유지 배경이자 권력승계의 성공 요인 4가지는 ‘제도의 정비를 통한 정당성 확보’, ‘개인승배를 통한 후계자의 이상화’, ‘혈연관계 중심의 후견인제도’와 ‘파워엘리트의 재편’이며 각 요소들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권력승계를 위해 제도의 정비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권력세습을 위한 정치적 절차와 여건을 마련하였다. 북한은 권력승계를 위해 당 조직을 정비함으로써 후계자의 권력세습 기반을 조성하였고, 이를 통해 정권의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고 우호적인 세력으로 국가기관을 개편하였다. 둘째, 북한은 권력승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후계자 이상화를 통해 독자적인 카리스마와 능력을 부각시켰다. 또한 대남도발을 비롯한 정치·군사적 이벤트를 통해 후계자로서의 능력과 대담성을 과시함으로써 인민과 파워엘리트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셋째, 북한은 후견인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독재체제에서 정권의 안정성이 가장 취약한 권력승계를 성공

<sup>66</sup> Leslie Holmes, *Politics in the Communist World* (New York: Oxford University, 1986), pp. 177~209.



적으로 마무리하였다. 북한은 불확실한 내외부적인 위협으로부터 안정적인 권력 승계를 보장하고 내부 갈등 요인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믿을 수 있는 혈연관계의 후견인을 통해 후계자를 보호하였다. 권력승계 기간에 따라 권력승계의 형태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특히, 김정은의 경우처럼 단기간의 예상치 못한 권력승계가 이루어진다면 권력승계 과정에서 장성택과 리영호의 경우처럼 권력 공유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북한은 후계자의 권력기반 구축을 위해 권력승계 공식화 단계에서부터 파워엘리트 조직을 통해 국가기관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권력의 균형자로서 ‘권력과 이권의 분배’를 통한 파워엘리트 간의 경쟁을 유도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권력세습 과정에서 정치국과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면서 다른 기관에 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북한의 언론매체들을 통해 김정은의 차녀 김주애가 등장하면서 북한의 후계 구도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김주애는 2022년 11월 19일, ‘화성-17’형 ICBM 시험발사 현장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뒤, 2023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포함한 대규모 군 관련 행사와 내각과 국방성 직원들의 체육행사 까지도 김정은과 동행하였다. 이 같은 북한의 변화에 대해 정성장 등은 후계자로 김주애가 내정된 것으로 판단하면서 그 예로 북한 언론이 수령에게만 사용하는 ‘존귀하신 자제분’이라는 호칭을 김주애에게 사용했다는 점을 들었다.<sup>67</sup> 반면, 고영환 등은 공식 후계자는 아직 전면에 등장하지 않은 아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sup>68</sup> 또한 김주애의 등장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김여정의 과해진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부드러운 인상을 줄 수 있는 딸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라 평가하였다.<sup>69</sup>

앞서 살펴본 연구결과를 통해 김주애의 후계자 내정 논란을 평가해보면, 1단계 후계자 내정단계에서 나타나는 ‘극존칭의 사용’을 우선 고려해 본다면 김주애가 후계자로 내정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후계 구도는 검증과정에서

<sup>67</sup> 정성장,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로 ‘내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8가지 이유,” (세종연구소, 세종논평 2023-02, 23.2.20.).

<sup>68</sup> “탈북외교관 “김정은, 딸 김주애 노출 이유 있다…이유는,” 『이데일리』, 2023.5.2.;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45366635604984&mediaCodeNo=257&utLnkChk=Y>> (검색일: 2023.5.3.)

<sup>69</sup> 오경섭은 백두혈통에 대한 인민들의 존경과 친밀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여성을 중심으로 한 로열 패밀리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대중들의 친밀감을 넓혔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오경섭, “북한의 4대 세습과 김주애,”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CO 23-10, 2023.3.13.)

언제든 변화될 수 있다. 김정은 이전에 김정남과 김정철의 후계자 검증이 진행되다 실패한 선례가 있는 것처럼 후계자는 내정단계나 그 이전 검토단계에서 언제든 교체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김주애의 등장은 김정은의 건강에 대한 내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직계 후손의 권력승계 가능성과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실제로 권력승계 1단계인 내정화 단계까지 진행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비'와 '후계자 이상화'가 본격화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권력승계를 준비하기 위한 동향이 파악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가장 안정적인 권력승계의 모델은 성공한 전임자의 권력승계 과정을 답습하는 것이다. 북한 정권이 붕괴되지 않는 이상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은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 본 논문을 통해 향후 전개될 수 있는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을 권위주의 체제의 특징을 통해 고찰해 본다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제출: 5월 6일 ■ 심사: 5월 26일 ■ 채택: 6월 14일

## 참고문헌

### 1. 단행본

- 베버. 박성환 역. 『경제와 사회』. 서울 : 문학과 지성사, 1997.
- 북한연구학회. 『김정은시대의 정치와 외교: 선군인가, 선경인가』. 서울: 한울, 2014.
- 스즈키 마사유키, 유영구 옮김.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서울: 중앙일보사, 1994.
- 오경섭.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승계 비교: 제도와 리더십의 동학을 중심으로』. 서울: 세종연구소, 2012.
- 이영중. 『후계자 김정은』. 서울: 늘봄플러스, 2010.
- 이찬행. 『김정일』. 서울: 백산서당, 2001.
- 전성우. 『막스 베버 사회학의 쟁점들』. 서울: 민음사, 1995.
- 정찬현. 『결에서 본 김정일』. 서울: 토지, 1999.
- Bruce Bueno de Mesquita and Alastair Smith, *The Dictator's Handbook: Why Bad Behavior is Almost Always Good Politics*. New York: PublicAffairs, 2011.
- Geddes, Barbara. *Paradigms and Sand Castles: Theory Building and Research Design*.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3.
- \_\_\_\_\_. *How Dictatorships Work: Power, Personalization, and Collaps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 Busky, Donald. F. *Democratic socialism: a global survey*. Westport: Greenwood Publishing Group, 2000.
- Domhoff, G. William. *Who Rules America?: The Corporate Rich, White Nationalist Republicans, and Inclusionary Democrats in the 2020s*. New York: Routledge, 2021.
- Dryzek, S & P. Dunleavy. *Theories of the Democratic State*. 6th. London: Macmillan, 2009.
- Ezrow, Natasha M. and Erica Frantz. *Dictators and Dictatorships: Understanding Authoritarian Regimes and Their Leaders*. New York: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2011.
- Kalu, Kalu N. *A Functional Theory of Government, Law, and Institutions*.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2019.
- Kathleen Thelen and Sven Steinmo.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Politics." in Steinmo, Thelen, and Frank Longstreth, ed., *Structuring Politic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Leslie Holmes. *Politics in the Communist World*. New York: Oxford University,

1986.

- Linz, Juan J. "An Authoritarian Regime: The Case of Spain." In Erik Allard and Yrjo Littunen(eds), *Cleavages, Ideologies and Party Systems*. Helsinki: Westermarck Society, 1964.
- Max Weber.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 Mills, C. Wright and Alan Wolfe. *The power elite*. New York: Oxford Univsity Press, 2000.
- Nathan, Andrew J. "China's changing of the guard: Authoritarian resilience." *Critical Readings on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4 Vols. Set). leiden: Brill, 2017.
- Pauline Jones Luong. "Politics in the Periphery: Competing Views of Central Asian States and Societies." Pauline Jones Luong (ed). *The Transformation of Central Asi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2004.
- Suzanne Keller.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and The Free Press, 1979.

## 2. 논문

- 김상범. "김정일의 권력승계 과정에 대한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24권 2호, 2021.
- 김인수. "북한 권력엘리트의 김정은 친화성 지수 개발-장성택 숙청 이후 현지도도 수행 인원의 변화를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9집 1호, 2017.
- 김진하. "독재체제 안정화 경로와 북한의 가산제(家産制) 권력집중 전략." 『국가전략』. 제 27권 2호, 2021.
- 김창희. "북한 권력승계의 정치: 이념·제도화·인적기반·사회화." 『한국동북아논총』. 제64호, 2012.
- 김태효·강채연. "북한 권력승계의 주기(週期) 모델과 북한 체제의 작동원리." 『국제정치 논총』. 제58집 2호, 2018.
- 박영자. "독재정치 이론으로 본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 조선노동당 '파워엘리트' 실태와 관계망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28권 제4호, 2012.
- 박형중 외. "수령독재 하에서 권력과 이권을 둘러싼 갈등 동학 그리고 장성택 숙청."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1호, 2014.
- 윤도원·백우열.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권력승계 과정과 체제 안정성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59집 3호, 2019.
- 이윤규. "북한 김정은 독재체제에서의 이상화: 김정일·김정은 이상화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전략연구』. 통권 제63호, 2014.
- 정성장. "김정은 후계체제의 공식화와 북한 권력체계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제2호, 2010.
- 정선미. "카자흐스탄 권위주의 체제 성립과 권력승계: 권력의 제도화와 정당성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28권 3호, 2022.

- 진희관. “김정은 정권의 현지도도 수행빈도를 통해 본 엘리트 변동 연구: 주요 인사의 로동신문 등장빈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31권 제4호, 2015.
- 이기동. “김정은의 권력승계 과정과 권력구조.”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제2호, 2012.
- 표윤신·허재영.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성격은 변화하고 있는가?: 당·정·군 현지도도 네트워크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제35권 제3호, 2019.
- 한기범. “권력승계 시기 북한의 지배구조와 대내외 정책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 Allen Hicken. “Clientelism.”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4. June, 2011.
- Brownlee, Jason. “...And Yet They Persist: Explaining Survival and Transition in Neopatrimonial Regimes.”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 37, no. 3, 2002.
- Clapham, Christopher. “Epilogue: Political succession in the Third World.” *Third World Quarterly*. vol. 10, no. 1, 1988.
- Frantz, E., Stein, E. A. “Countering coups: Leadership succession rules in dictatorship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50, no. 7, 2016.
- Gandhi, Jennifer and Adam Przeworski. “Authoritarian Institutions and the Survival of Autocrat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40, no. 11, 2007.
- Geddes, Barbara. “What do we know about democratization after twenty year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2, no. 1, 1999.
- Gerschewski, Johannes. “The Three Pillars of Stability: Legitimation, Repression, and Co-Optation in Autocratic Regimes.” *Democratization*. Vol. 20. No. 1, 2013.
- Govea, Rodger and John Holm. “Crisis, Violence and Political Succession in Africa.” *Third World Quarterly*. vol. 19, no. 1, 1998.
- Herz, J. H. “The problem of successorship in dictatorial regimes: A study in comparative law and institutions.” *The Journal of Politics*. vol. 14, no. 1, 1952.
- Lai, Brian, Slater, Dan. “Institutions of the Offensive: Domestic Sources of Dispute Initiation in Authoritarian Regimes, 1950~1992.”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0, no. 1, 2005.
- Paik, Wooyeal and Richard Baum. “Cliente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Local Patronage Networks in Post-Reform China.”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29, no. 4, 2014.

### 3. 기타자료

『매일경제』.  
『시사저널』.  
『연합뉴스』.  
『이데일리』.  
『프레시안』.  
『Daily NK』.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www.nkinfo.unikorea.go.kr](http://www.nkinfo.unikorea.go.kr)>.

The Cambridge English Dictionary <<https://dictionary.cambridge.org/us/dictionary/english/elite>>.

권양주. “북한, 리영호 총참모장 해임 배경과 함의.” 한국국방연구원. 동북아안보정세분석, 2021.7.17.

박영자. “김정은 정권의 핵심 파워엘리트.” 『월간 북한』, 2017년 10월.

오경섭. “북한의 4대세습과 김주애.”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CO 23-10, 2023.3.13.

정성장.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로 ‘내정’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8가지 이유.” 세종연구소. 세종논평 2023-02, 23.2.20.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동지의 위대성 교양자료』.

『조총련 학습자료』 (1982. 2).

## Abstract

# Th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Power Succession in North Korea from the Theory of Authoritarian System

*Kang, Jung Il*

Based on the authoritarian system theory,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of power succession in North Korea and its characteristics. In addition, it predicts the future process of North Korea's power succession by examining the "background of North Korea's long-term retention of power and why the three major power succession was possible."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political system of the North Korean regime through the review of the authoritarian system theory, and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power succession in the authoritarian system. In addition, the process of power succession in North Korea wa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the stage of appointment of a successor, the stage of formalization of a successor, and the stage of stabilization after power succession, comparing and analyzing the process of power succession between Kim Jong-il and Kim Jong-un. Afterwards, this paper examined why the North Korean regime was able to achieve a stable power succession,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authoritarian system, and predicted the process of power succession after Kim Jong-un.

As a result, North Korea, a dictatorship, was able to stably achieve power succession through four characteristics of the authoritarian system: "securing legitimacy through system maintenance," "idolizing successors through personal worship," "guardian system centered on blood relations," and "reorganization of the power elite" The four characteristics of the authoritarian system are expected to be followed by North Korea's power succession process in the future.

**Key Words:** power succession, authoritarian system theory, guardianship, idolization, power elite.